

등의 복지조건의 향상으로 인해 낮아지고 있는 이직추세와 함께 결혼이후에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훈련하여 활동영역을 넓혀 줌이 바람직하겠다.

## 전북지역 일부 주민들의 자녀가치관에 대한 태도 조사

전북대학교 간호전문대 논문집, pp. 43~57, 1981.

### 이 속 회

본 연구는 임의로 선정한 전북지역주민 1,394명을 대상으로 1982년 6월10일부터 동년 7월10일사이에 표준화된 질문지에 의해 수집된 자녀가치관에 대한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#### 1. 일반적인 특성

- 1)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6.8세이었다.
- 2) 성별은 남자 48.92%, 여자 51.08% 였다.
- 3)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과반수이상(55.88%)이 대학 및 그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.
- 4) 평균 현존자녀수는 3.9명이었다.

#### 2.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

- 1) 도구적 가치로서의 자녀관에 있어서는 가문계승(평점 5.52)이 가장 높은 긍정반응을 나타내었으며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긍정반응을 보였다.
- 2) 정서적 가치로서의 자녀관은 사랑의 대상(평점6.17)이 가장 높은 긍정반응을 보였으며 도시지역이 더 긍정반응이었고 도구적, 부정적 가치로서 보다 높은 평점을 나타내었다.
- 3) 부정적 가치관을 보면 경제적 부담(평점5.12)에 대해서는 긍정반응을 보였으나 자녀양육활동(평점3.15)에 대해서는 부정반응을 나타내었으며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높은 평점을 보였다.

#### 3. 가계존속으로서의 남아욕구에 대한 태도

가계존속을 위한 남아욕구에 대해서는 아들이 필요하지만 없을 경우엔 포기하겠다는 반응이(53.80%) 가장 많았는데 농촌지역에서( $p < 0.05$ ), 학력이 낮을수록( $p < 0.01$ ), 남성( $p < 0.01$ )이, 아들에 대한 욕구가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.

#### 4. 자녀교육 희망정도 및 자녀희망 직업에 대한 태도

응답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자녀교육정도는 아들의 경우 88.31%, 딸은 83.50%가 대학 또는 그이상의 교육수준을 원하고 있어 약간의 성차를 나타내었다. 자녀직업에 대한 희망직종을 아들은 교수(17.7%), 행정관리직(16.28%) 이, 딸에 대해서는 교수나 교사(34.72%)가 가장 많았다.

#### 5. 제 언

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.

1. 자녀를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에 비중을 둘 수 있도록 가족법의 개정등 사회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.
2. 남아육구의 불식을 위해 사회정책의 강화 및 학교교육을 통한 단일과목으로서의 인구교육의 확보방안이 모색되어야 겠다.

## 전북지역 일부 주민들의 가족규모 및 인구문제에 대한 태도 조사

전북의대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8집, pp. 15~28, 1981.

### 이 속 회

본 연구는 임의로 선정한 전북지역민 1,394명을 대상으로 1982년 6월10일부터 동년 7월10일 사이에 사전에 준비한 설문지에 의해 수집된 가족의 크기와 인구문제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#### 1. 일반적 특성

- 1)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6.8세이었다.
- 2) 성별은 남자 48.92%, 여자 51.08%로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.
- 3) 교육정도는 과반수이상(55.88%)이 대학 및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.
- 4) 평균 현존자녀수는 도시 3.8명, 농촌 4.0명이었다.

#### 2. 가족크기에 대한 태도

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을 주위사람들의 평균 자녀수를 3~4명으로 알고 있으며(73.03%), 자녀수가 1명일 경우 적은 자녀수라고 생각하였고(76.47%), 자녀수 4~5명일 경우 많은 자녀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.(70.23%)

한편 가족크기를 결정할 때 사회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(82.64%)이 지배적